

숲에서 길을 잃다

Lost in the Forest

1장. 주말 여행

p.10~11

“하지만 제가 왜 가야 하는데요?” 루비가 팔짱을 끼고서 노려보았다. “전 엄마랑 쇼핑하러 가고 싶어요. 옷을 적시고 더럽히면서 주말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요.” “너한테 좋을 거야.” 아빠가 말했다. “너는 야외 활동이 충분하지 않아. 하여튼, 그렇게 참지도 않고, 봄이잖니, 어쨌든, 그리고 그들이 네가 입을 적절한 옷을 줄 거란다.”

마침내, 그들은 좁은 길로 돌아 들어갔다. 입구의 표지판에 **오크필드 모험 센터**라고 쓰여 있었다. 좁은 길 끝에 낮은 석조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 너머로 들판이 있었는데, 그 들판은 언덕들로, 다음에는 산으로 이어졌다.



p.12~13



모든 산 정상은 얇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뾰족한 숲이 가장 높은 산을 뒤덮고 있었다. “저 언덕들 너머 저곳이 ‘생존자의 봉우리’란다.” 아빠가 말했다. “저기엔 올라가지 말아라. 아주 위험해. 가파른 낭떠러지들이 있어.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져 죽었던단다.” “왜 저곳이 ‘생존자의 봉우리’라고 불려요?” 루비가 물었다. “등산객 한 팀이 거기서 사고를 당했어.” 아

빠가 말했다. “생존자는 단 한 명뿐이었지.”

p.14~15



한 젊은 여자가 건물에서 나왔다. 그녀의 금발 머리는 포니테일 스타일로 뒤로 묶여 있었다. “네가 루비구내!” 그녀가 소리쳤다. “오크필드에 온 걸 환영한다. 내 이름은 홀리야. 우리는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홀리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빠는 차에서 내리며 말하고 홀리와 악수를 했다. 루비는 아주 빨리 안녕하세요, 라고 우물거렸다.

“들어와.” 홀리가 말했다. “네 캠프 친구들에게 너를 소개해줄게.” 루비는 트리트리트 차에서 내렸다. 아빠는 그녀의 가방들을 차에서 내리고 그녀를 재빨리 꺼안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차에 타더니 차를 몰고 떠나갔다. 루비는 아빠를 쫓아서 달려가고 싶었다. 그 대신에 그녀는 홀리를 따라 실내로 들어갔다.



p.16~17

그들은 큰 통로를 지나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왼쪽으로 돌아 양쪽에 문이 있는 복도로 갔다. “이곳이 네 침실이야.” 그 문들 중 하나를 열면서 홀리가 설명했다. 벽 쪽에는 두 개의 2층 침대가 있었다. “넌



다른 세 명의 여자 친구들과 여기서 자게 될 거야.” 홀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잘 거란 거지. 내일

은 야외에서 잘 거고.”

루비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이 방은 충분히 나빠 보였지만, 야외에서 잠을 자게 된다는 건 말도 안 됐다. 절대 이리없는 일이었다! 홀리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막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 여행한 후라 너도 배가 고프겠구나.” 루비는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속이 좀 안 좋았다. 하지만 그녀는 홀리를 따라 다시 복도를 지나고 통로를 가로질러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넓은 식당으로 갔다.

p.18~19

그곳에는 대략 스무 명의 아이들이 있었던 게 분명했지만, 그들은 100명은 되는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었다. 아이들은 두 개의 긴 식탁에 앉아 있었다. 홀리는 루비를 한 쪽 식탁 끝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여기 앉으렴, 버네사 맞은편에.” 홀리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루비의 식사를 가지러 갔다.



루비는 앉았다. 안경을 쓴 통통한 여자아이인 버네사가 그녀를 쳐다봤다. “거기 앉지 마.” 그녀는 툭 쏘아 말했다. “왜 안 돼? 아무도 여기 앉지 않았는데.” 루비가 말했다. 버네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노려보더니 다시 식사를 했다.

p.20~21



저녁식사 후에, 모두가 주 회의실에 모였다. 루비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슬며시 꺼내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와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녀가 썼다. 여기는 끔찍해요. 그녀가 막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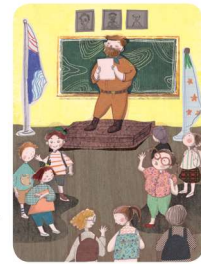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손 하나가 그녀의 뒤에서 쑥 내려왔다. “전화, 태블릿, 컴퓨터나 다른 전자 기기는 금지다.”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주말이 지나면 너는 그것을 다시 돌려받게 될 거다.” 루비는 항의할 기회를 잡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빼

앗겼다. 남자는 앞에 나가 섰다. “안녕, 여러분!” 그가 우렁차게 말했다. “내 이름은 매슈스 소령입니다. 여러분은 생존에 대해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여러분은 또 자신감과 용기를 기우기 위해 이곳에 왔죠. 여러분은 네 명으로 된 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각 팀은 두 명의 여학생과 두 명의 남학생으로 구성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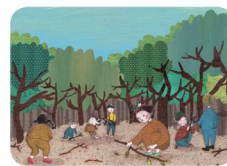
p.22~23

매슈스 소령은 소리 내어 이름을 읽었다. 루비는 제임스와 케빈이라는 두 명의 남자아이들과 한 팀으로 배정되었다. 제임스는 아주 친절해 보였다. 그는 발그레한 볼에 환한 미소를 가졌다. “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제임스가 말했다. “전에 스카우트에서 전부 해봤거든.” 케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서는 누구도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팀의 네 번째 멤버는……” 매슈스 소령이 말했다. 이름이 불리자 루비는 신음 소리를 냈다. “…… 버네사!”



2장. 생존 기술들

p.26~27



다음 날 아침, 팀은 불 피우는 법과 그 불로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 첫 번째 과제는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를 모으는 것이었다. 센터 주변에는 나무가 많았다. 나뭇가지와 잎을 찾기는 쉬웠다.

“너희들은 구부렸을 때 부러지는 마른 나뭇가지가 필요해.” 홀리가 말했다. “만일 나뭇가지들이 너무 녹색을 띠고 축축하면 쉽게 불이 붙지 않을 거야. 만

약 그 나뭇가지들에 불이 붙으면, 연기가 많이 생길 거야.” 그들은 불을 피우기 위한 마른 나뭇가지를 충분히 찾았다. 홀리는 그들에게 나뭇가지들을 원뿔 모양으로 세우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 산소가 많이 있게 된다는 뜻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게 불이 타는 걸 도와주지.”

p.28~29



버네사가 시도해봤지만 나뭇가지들은 쓰러졌다. 그녀는 그것들을 사납게 발로 찼다. “버네사,” 홀리가 주의를 주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어. 생존에 관련될 때는 팀으로 일해야만 해. 네 생명이 거기에 달릴 수도 있어.” “난 팀이 필요 없어요.” 버네사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차라리 혼자 할래요.”

케빈은 올바른 방식으로 나뭇가지 쌓는 것을 잘했다. “잘했어.” 루비가 말했다. 케빈은 수줍게 그녀를 흘끗 쳐다보고는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그는 멀리 있는 생존자의 봉우리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오늘 아침보다도 훨씬 더 험악해 보였다. 이제 그 정상은 구름 속에 숨겨져 있었다.



p.30~31

아이들은 연소의 3요소에 대해 배웠다. 그것들은 불이 계속 타오르는 데 필요한 세 가지였다. “그것들이 뭘까?” 홀리가 대답을 요구했다. “연료요.” 버네사가 말했다. “산소요.” 제임스가 말했다. “열이요.” 루비가 말했다. 케빈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이제 발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야 해.” 홀리가 발화기 하나를 루비에게 건넸다. 그것은 플라스틱과 두 조각



의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홀리는 불꽃을 만들

기 위해 어떻게 금속 조각 하나를 다른 쪽에 대고 긁는지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루비는 불꽃을 계속해서 만들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나뭇가지에 붙지 않았다. “너는 쓸모가 없구니.” 버네사가 투덜거렸다. “그러면 네가 해봐.” 루비가 말했다. 하지만 버네사 역시 불을 붙일 수 없었다.

p.32~33

“우리는 좀 더 불에 잘 타는 뭔가가 필요해.” 홀리가 말했다. 그녀는 작은 페트롤륨 연고 한 통을 케빈에게 건넸다. 그는 그녀의 지시를 따라 그것을 탈지면 조각 위에 문질렀다. 케빈은 페트롤륨 연고로 뒤덮인 탈지면 위 발화기에 불꽃을 냈다. 그것은 즉시 불이 붙었고 타오르기 시작했다. 루비는 얼굴에 와 닿는 온기를 즐기며 미소 지었다. 만약 버네사만 없었다면 이걸 꽤 재미있었을 텐데, 하고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아침 시간의 후반부는 피신처를 짓는 데 보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나무기둥이나 벽에 기대어 놓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마른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나뭇가지들이 계속해서 쓰러졌다.



p.34~35



아이들은 또한 지도와 나침반을 써서 길을 찾아가는 것을 배웠다. 아침이 끝나갈 무렵에는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

다. 마치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처럼 보였다. 다가올 밤을 생각하자 루비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오후, 매슈스 소령은 모두를 함께 모았다. “여러분은 생존 기술과 방향을 찾는 방법을 배우면서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배운 내용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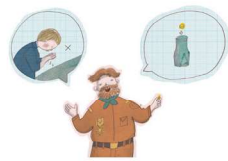
제로 쓰게 될 것입니다. 각 팀은 야외에서 잠을 자게 될 거예요. 우리는 2제곱마일의 지역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역 안의 어디에든지 캠프를 세워도 돼요. 여러분이 그 울타리 안에 미루는 한, 여러분은 안전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도 생존자의 봉우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홀리가 웃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p.36~37

“안전 지역을 순찰하는 어른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소령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만일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호루라기를 사용하세요.” 그는 특별한 신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였다. 그것은 국제조난신호였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다. “호루라기를 여섯 번 부세요.” 소령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멈추고 들으세요. 가까이 있는 어른이 자기 호루라기를 세 번 불 거예요. 여러분은 도움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각 팀은 네 개의 배낭을 받았다. 모든 배낭에는 방수가 되는 옷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 중 하나에는 발화기, 탈지면, 그리고 페트를름 연고가 들어 있었다.



p.3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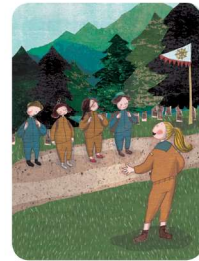


거기에는 또한 물을 정화하는 정제약이 들어 있었다. “강물을 마시지 마세요.” 소령이 경고했다. “거기에는 여러분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세균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물에 정제약을 넣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3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나면, 물은 마시기에 안전할 거예요.” 팀들은 손전등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두꺼운 비닐로 만들어진 커다란 주황색 봉투를 하나 받았다. 서바이벌 백이라고 그 위에 인쇄되어 있었다. 제임스

는 그것을 종이 한 장 크기로 접었다. 그는 그것을 루비에게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자기 배낭 안에 쑤셔 넣었다. 그들은 동결 건조된 닭고기와 피스다를 몇 갑 받았다. 그들은 거기에 물을 부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것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p.40~41



루비, 케빈, 그리고 버네사는 각자 배낭을 짰다. 제임스는 네 번째 배낭을 받았다. 거기에는 물을 만드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물 정제약이 들어 있었다. 루비의 팀이 첫 번째로 출발하는 팀이었다. “너희는 캠프를 세우기 전에 세 군데의 검문소를 발견해야만 해.” 홀리가 말했다. “이것은 너희의 방향 찾는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거야. 난 너희보다 먼저 가서 첫 번째 검문소에서 기다릴 거야. 만약 길을 잃으면 호루라기를 불도록 해.” 홀리는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가버렸다.

3장. 안개 속의 두려움

p.44~45

루비는 지도를 사용하는 것에 꽤 능숙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느 방



향으로 가야 할지 알았다. 하지만 잠시 후에 버네사가 그녀의 손에서 그것을 낚아챘다. “내가 대장이야.” 그녀가 말했다. “제임스가 부대장이고.” 제임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가 말했다. “케빈하고 나는?” 루비가 물었다. 하지만 버네사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

어가 버렸고, 제임스는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저 애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루비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중얼거렸다. 케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p.46~47

아이들은 약 30분 동안 걸었다. 두꺼운 회색 안개가 그들 주위로 내려앉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덮었다. “우리는 지금쯤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어야 해.” 제임스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주말 최초로 버네사는 확신이 없는 듯 보였다. “모르겠어.” 그녀가 인정했다. 그들은 모두 주위를 둘러 보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호루라기를 불어서 도움을 청하자.” 루비가 제안했다. “그건 비상시를 위한 거잖아.” 버네사가 쏘아붙였다. “그렇게 아기처럼 굴지 마.”



p.48~49



잠시 후에, 그들은 울타리에 도착했다. “여기는 안전 구역의 가장자리임이 틀림없어.” 제임스가 말했다. 버네사가 그 위로 타고 넘어갔다. “잠깐!” 루비가 말했다. “우리가 그쪽에 가는 건 허락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네가 아기라는 거야.” 버네사가 말했다. “적절한 생존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니? 어른들이 항상 우리를 감시하는 걸 원하는 사람 누구 있어?”

제임스는 얼굴이 붉어졌다. “난 원하지 않아.” 비록 확신이 있는 목소리로 들리진 않았지만, 그가 말했다. 케빈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루비는 그가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어른들이 감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만 겁먹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오, 알겠

어.” 그녀는 한숨지었다. 어쨌든 그들은 호루라기를 불기만 하면 됐고, 도움이 올 것이었다. 그들은 캠핑하기 좋은 장소를 찾고 불을 피울 수도 있을 것이었다.

p.50~51



끝없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팀은 캠핑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 계속해서 걸었다. 루비는 끈적끈적한 진흙투성이

눈에 발이 빠졌다. 제임스가 그녀를 빼내기 위해 배낭을 벗었고 그들 모두 다시 출발했다.

잠시 후에, 루비는 그들이 숲을 가로질러 오르막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지기만 했다. “돌아가자.” 제임스가 말했다. “나는 울타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들은 돌아섰지만 안개가 너무 짙었다. 그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잠깐만.” 루비가 말했다. “나무들이 있는 언덕은 딱 하나야.” “생존자의 봉우리!” 버네사가 숨을 몰아쉬었다.

p.52~53

그녀는 루비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만약 우리가 벼랑 끝으로 곧장 걸어가면 어찌지?” “호루라기를 불자.” 루비가 말했다. 이번에는 버네사가 동의했다. “그거 누가 가지고 있지?” 그녀가 말했다. “내 배낭에 있어…….” 제임스가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오, 안 돼! 눈에 빠진 루비를 구하려고 배낭을 벗었는데, 그걸 거기에 두고 왔어!”



다 함께,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지만, 거기에 답하는 외침은 없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꽤 오래 야외에 나와 있었고, 슬금슬금 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어떡하지?” 버네사가 훌쩍이며 말했다. 그녀는 루비에게 너무나 바짝 다가와 있어서, 그들의 팔이 거의 맞닿아 있었다. “나 무서워.” “우리는 은신처를

만들고 불을 피워야 해.” 루비가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불을 피울 수 없어.” 제임스가 말했다. “발화기가 내 가방 안에 있어.”

p.54~55

케빈이 미소를 짓고서는 루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원가를 살그머니 꺼냈다. 발화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탈지면과 페트롤럼 연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잠깐.” 버네사가 말했다. “나한테 림밤이 있어. 그것으로 해보자.” 제임스는 그의 외투에서 약간의 충전재를 뽑아냈다. 그들은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모으고 외투 충전재에 림밤을 문질렀다. 케빈은 첫 번째 시도로 겨우 불을 피울 수 있었다!



p.56~57



“이제 우리는 피신처가 필요해.” 루비가 말했다. 다 함께, 그들 넷은 나무 기둥 쪽으로 나뭇가지들을 끌고 갔다. 그들은 주황색 서바이벌 백을 땅에 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나뭇가지들을 나무 기둥에 기대어 놓았다. 버네사가 몇몇 양치식물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나뭇가지에 걸쳤다. 그들은 은신처 옆 불 가까이에 웅송 그리며 모여앉았다. “배고프다.” 제임스가 말했다. “적어도 우리한테 아직 음식이 있어. 그것을 먹자.” “그럼 물이 필요해.” 루비가 말했다. “누가 정제약을 가지고 있지?” “그것도 내 배낭에 있었어.” 제임스가 말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물을 정화해야겠네.” 루비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은 거 기억나니?”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을 불 위에 놓고 끓이는데, 5분 동안 계속 끓게 두어야 해.”

p.58~59

그래서 다음 임무는 물을 찾는 것이었다.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건 내 잘못이야.” 버네사가 말했다. “내가 갈게.” 루비는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아주 희미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내가 같이 갈게.” 그녀가 말했다.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그녀는 자신의 배낭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이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소녀들은 하늘에 뜬 몇 개의 별도 볼 수 있었다. 손전등은 그들이 폭포 가장자리로 가는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5미터 정도 아래에, 물이 빠르게 흘러 강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조심해.” 루비가 경고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버네사의 발은 젖은 이끼 조각 위에서 미끄러졌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녀는 앞으로, 폭포의 가장자리 너머로 떨어졌다.



4장. 대담한 구조

p.62~63

“버네사?” 루비가 소리쳤다. “너 괜찮니?” 아래쪽 어딘가 어둠 속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루비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내려갈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그녀의 벨트에 끼웠다. 그것은 아래 쪽을 가리켰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바위 가장자리 쪽으로 몸을 굽혔다.



p.64~65



그녀의 아빠는 그녀가 더 어렸을 때 등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그녀는 배웠던 모든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세 지점은 계속 바위에 달아 있어야 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두 손과 발 하나, 혹은 두 발과 손 하나. 한 번에 하나만 움직여.” 천천히, 주의 깊게, 그녀는 내려갔다. “버네사?” 그녀가 소리쳤다. “나 여기 있어.” 버네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다쳤니? 올라갈 수 있겠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고 안경이 깨졌어. 다리는 괜찮지만 올라갈 순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들은 함께 도와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 아래 있는 물 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괜찮아, 버네사.” 루비가 말했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p.66~67

천천히, 주의 깊게, 여자아이들은 폭포 측면으로 다시 힘겹게 올라갔다. 달빛이 젖은 바위를 비추었다. 루비는 버네사의 손과 발을 잡고 알맞은 곳에 놓아 주어야 했다. 그러는 내내 그녀는 아래에서 물이 요란하게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고,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마침내, 두 여자아이들은 꼭대기에 도착했다.



다. 제임스와 케빈이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결국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버네사는 완전히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몸을 떨었고, 이가 딱딱 맞부딪히기 시작했다. “그 애를 불 가까이 옮기자.” 루비가 말했다. “저체온증에 걸릴지도 몰라.” 다 같이 그들은 버네사가 불과 피신처 쪽으로 가도록 도왔다.



p.68~69

“그 애의 젖은 옷을 벗겨야 해.” 루비가 말했다. 그녀는 버네사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버네사에게 자신의 양털 재킷을 주었다. 제임스가 서바이벌 백을 들어 올렸다. 버네사가 그 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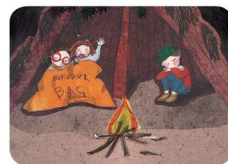
로 들어갔고, 루비도 들어갔다. 그녀는 가능한 한 버네사와 가깝게 누웠다. 그녀는 두 팔로 버네사를 감쌌다. 루비의 체온과 불의 온기가 버네사를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몸을 떠는 것을 멈췄다. 케빈은 루비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톡톡 쳤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대답으로 그는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들고서는 땅 위에 메시지를 긁어 적었다. 도움을 청할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 잘 될 거라는 신호를 주고서는, 나무들 사이로 급히 빠져나갔다.



p.70~71

버네사는 울기 시작했다.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 미안해.” 그녀가 흐느꼈다. “난 평소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왜 그랬니?” 루비는 이제 버네사가 안쓰러웠다. “학교에선 항상 모두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 이번 주말 동안만이라도 뭔가 달라지기를 바랐어. 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어.” 루비는 미소를 지었다. “어떤 느낌이었는데?” “끔찍했어,” 버네사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함께 할 때가 훨씬 더 좋아.”

여자아이들과 제임스는 타닥거리는 불을 응시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선잠이 들었다. 루비는 어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움찔하며 잠에서 깼다. “우리 여기 있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p.72~73

잠시 후에, 홀리와 매슈스 소령이 나무 사이로 서둘러 달려왔다. 케빈이 길을 안내하며 그들을 앞장서서 달렸다. “너희들을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다!” 홀리는 숨을 헐떡거렸다. “모두가 너희를 찾으러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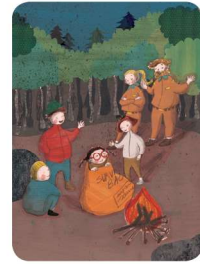
을 찾아.” 홀리가 설명했다. “그가 거기서 신호로 불을 붙였지.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걸 봤어. 너희가 생존자의 봉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믿을 수 없었단다. 우리는 불 쪽을 향해 걸었고 거기서 가능한 한 크게 불을 만들고 있던 케빈을 발견한 거야.”



있어.”

“우리를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루비가 물었다. “케빈이 절벽 가장 자리에 있는 망보는 곳

우면 되고, 나는 버네사를 좀 더 치료하기 위해 센터로 데려갈 거야. 그런 다음, 그 애가 충분히 괜찮아지면 그 애가 와서 남은 밤 동안 너희와 합류할 수 있어. 니도 같이 미물 거고.” 매슈스 소령은 확신이 없어 보였다. “제발요?” 루비가 사정했다. “우리는 어떻게 불을 피우고 좋은 피신처를 만드는지 알아요.” 매슈스 소령은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동시에 미소 짓고 있었다. “좋아,” 그가 말했다. “너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결국, 우리는 생존자의 봉우리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루비가 말했다.



p.74~75



케빈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난 네가 바보라고 생각했어, 케빈.” 버네사가 고백했다. 그녀는 팔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 생각에는 우리 모두 많은 것을 잘못했던 것 같아.” 루비가 말했다.

매슈스 소령의 벨트에 달린 무전기에서 치직 소리가 났다. “자, 애들아.” 그는 말했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센터로 다시 데려갈 거야. 너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침대가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버네사와 루비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제 생각엔, 이곳 야외에서 머무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루비가 천천히 말했다. “버네사는 머물 수 없어.” 소령이 말했다. “부상을 입었잖니.” “작은 자상이랑 멍들뿐이지만.” 홀리가 말했다. “내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어. 내가 그 애를 치료할게.” “저 이전 괜찮아요.” 버네사가 말했다. “기분 좋고 따뜻하고요.”

p.76~77

“우리 없이 그 애를 데려가실 순 없어요.” 루비가 항의했다. “우리는 한 팀으로 시작했고, 한 팀으로 머물고 싶어요.” “알아,” 홀리가 말했다. “울타리 안, 안전한 지역으로 내려가자. 너희는 거기서 캠프를 세